

목포시 '적극 행정' 위한 혁신 고삐 죄다

조직 수술·빠른 인사로 체질 개선... 기능 중심·협업 강화 주력 높아진 브랜드 가치 기회 살려 시민 자존감 키우고 희망 심기

목포시의 인사시계가 빨라지고 조직도 수술대에 오른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그에 따른 인사도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보여 지역 관가에 '피 말리는 연 말'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이면 민선 7기가 반환점을 돌고 성공리에 뿌리내린 3대 목포브랜드 파워(남만항구 목포, 맛의 도시 목포, 슬로 시티 목포)를 강화시켜 본격적으로 '열매'를 따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김중식 시장이 이전과 달리 이번 인사를 통해 경영 색깔을 확연히 드러내는 인사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는 김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지난 20일 열린 11월 중동장 회의에서도 일·성과 중심의 인사 의지를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외부 인사(브로커) 동원

과 줄서기가 공직자들 몸에 배어 있다. 이번 인사는 이 같은 습성을 뿌리 뽑는 첫 인사가 될 것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일을 열심히 한 부서와 직원들이 보상받는 인사시스템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의 내부혁신 의지는 수술대에 오른 조직개편에서도 읽힌다. 비난을 감수하면서 1년도 안 돼 다시 칼을 빼든 그의 '딤 체인지(근원적 변화)'는 빠르고 과감했다.

이번 조직 수술의 키워드는 '기능 중심'과 '협업 강화'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관광+문화예술+교육체육을 하나로 묶

고, 환경사업단과 상하수도사업단을 통합할 시킨 것만 봐도 이 같은 의도가 엿보인다.

김 시장의 의지가 강한만큼 현재 시의회에 상정된 조직개편안이 다음달 19일 통과되면 곧바로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정기인사는 통상적으로 상반기는 1월말~2월초, 하반기는 7월말~8월초에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1월초와 7월초에 단행된다.

이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시기(이하 근무성)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6월말과 12월말에서 앞으로 5월말과 11월말로 변경된다. 단 내년 근무성은 유예기간을 감안해 올 12월 31일, 내년 6월 30일과 11월 30일 모두 세 차례 실시된다.

근무 결과를 정기인사에 반영해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김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여기에 이번 인사에서 능력과 성과 위주의 케이스 승진을 선보이기로 한 것도 획기적인 혁신 사례로 평가된다.

8년 만에 여성국장(4급, 행정직) 탄생

도 관심 대상이다.

시장 안팎에선 주요 요직에 여성과장들이 포진해 있어 여성국장 강세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들어 김 시장은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을 자주 언급했다.

'2019 시장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 자리에서도 김 시장은 이같이 말하면서 "당당하고 소신껏,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주문했다.

이는 "목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 서 전국적으로 뜨는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려 시민들 자존감을 높이고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당당하게 앞을 내다보고 가라"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조직과 인사로 내부혁신 고삐를 죄겠다는 김 시장의 이번 실현이 연말연시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삼학도·유달산이 산뜻해졌네... 희망근로사업 공원녹지분야 호평

목포시 공공일자리 선택과 집중 생산성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

"가지치기와 잡목을 제거하고 그동안 삼학도에 쌓여있던 각종 부산물과 오래 묵은 쓰레기를 치우고 나니 삼학도가 환해졌어요. 산책 나온 시민들에게 '삼학도가 생긴 이래 이렇게 시원하게 정비된 것은 처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아요."

공공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삼학도에서 희망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이훈봉(54)씨는 "요즘 유달산과 삼학도는 희망근로가 지킨다는 말이 유행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목포시 일자리정책과에 따르면 이 씨처럼 고용위기지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들은 206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공원녹지 분야에서만 ▲유달산 탐방숲길 및 쉼터조성(102명) ▲산림당굴제거 사업(120명) ▲관광지 꽃피는 경관조성 사업(50명) ▲삼학도 경관 정비 및 등산로 보수 사업(60명) 등 10개 사업에 715명이 비저발을 흘리고 있다. 전체 인원의 3분의 1이 공원녹지 분야에 투입된 셈이다.

목포시가 이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공원녹지 분야에 희망근로인력을 집중 투입하면서 특히 산림 분야



목포시가 공공일자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공원녹지분야에 희망근로 인력을 집중 투입하면서 산림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유달산 탐방숲길 및 쉼터 조성 사업. <목포시 제공>

에서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감독관이 지난 14일 희망근로 지원 사업 추진현황 실태 점검 차 목포를 찾아 산림분야 희망근로 진행사항을 지켜본 뒤 만족감을 표시하고 돌아갔다는 후문이다.

목포시 희망근로사업이 공원녹지분야에서 호평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다. 내년부터 진행될 '삼학도 평화의 숲 조

성'과 '사계절 꽃피는 관광명소 조성' 사업에 앞서, 기반 조성작업에 이들을 투입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시비도 절감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생산성을 높여 '공공일자리 사업이 투자비용에 비해 생산성이 없다'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시키는 효과도 거두었다.

목포시 공원녹지와 관계자는 "10개 희

망근로 사업을 통해 목포 식생에 맞는 수목 식재와 관리, 둘레길 조성, 숲 접근성 제고 등으로 목포지역 공원과 숲을 잘 가꾸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부족한 관리인력 충원 등 1석2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대성동 행정복지센터는 건립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되던데다가 공간이 협소해 지난 2016년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축이 추진됐다.

대성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4년만에 본궤도

토지 소유자와 계약 완료 23억 투입 2021년 준공

목포시 대성동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동 청사 신축이 4년 만에 본궤도에 올라 새 옷을 입게 됐다.

지난 2016년 대성동 피난민촌에 1400세대 LH전년나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정주여건이 급변하고 기존 청사 또한 1990년 건축돼 노후화된 데다가 공간마저 협소해 신축이 추진됐다.

하지만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지연되면서 이전 후보지 변경 검토에 들어가는 등 수차례 난항을 겪어오다가 지난 8월 토지소유자가 '재 감정평가 후 매도' 의사를 표명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복지센터 주변 5필지에 대한 재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건물 등 총 4억5100만원으로, 지난 10월 24일자로 계약이 완료됐다.

목포시 회계과에 따르면 신청사는 현재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인근 부지 5필지를 추가 매입해 연면적 913㎡(대지면적

1062㎡)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진다.

신청사 건립에는 토지매입비 3억6600만원, 건물보상비 2억8000만원, 건축비 15억원, 설계비 8000만원, 부대비 1억5500만원 등 총 23억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민원실을 비롯해 회의실과 다목적 강당 등이 들어선다.

특히 다목적강당은 시민이 즐기고 공유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대성동 일원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문 목포시 청사관리 팀장은 "총 사업비 23억 가운데 미 확보된 예산 14~15억 원 가량을 내년도 1차 추경에서 확보하는 게 숙제"라며 "사업비 확보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2021년 3월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청사를 주민과 행정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공의 장소로 조성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설계유역에 반영할 방침이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소방서, 김천오 소방관에 '트라우마 세이버' 전수

중증외상 환자 응급처치 기어

목포소방서는 중증외상 응급처치로 환자의 생명과 장애를 저감에 크게 기여한 김천오(사진) 소방관에게 '트라우마 세이버'를 전수했다고 밝혔다.

트라우마 세이버는 중증외상환자에게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해 생명 유지와 후유장애를 최소화한 구급대원에 수여하는 하트·브레인·트라우마 세이버와 함께 3대 인증제도이다.

전남 지역 최초로 트라우마 세이버가 된 김 소방관은 지난 6월 영암군 대불 삼

호삼거리 교통사고로 중상을 당한 조모(15)양을 신속 정확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했다.

김천오 소방관은 "맑은 바 임무를 다했을 뿐인데 전남 최조라 큰 영광을 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스마일·라식·라섹·노안·백내장 수술
신세계안과 1566-9988
옛.밝은광주안과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